

## 광주시, 23일 '더 큰 광주' 시민축제 연다



'빛들이♥빛나영' 팝업존 즐기는 시민들 사진

/광주광역시 시청 제공

### 140만 시민이 함께 만든 참여형 축제의 장 통합특별시 비전 선포로 공동체 미래 제시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새 시대를 축하하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가치를 품는 포용도시 '더 큰 광주'를 여는 '시민축제'가 열린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로 61번째를 맞는 '광주시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23일 시청 일원에서 '시민 축제'를 연다.

'광주시민의 날'인 5월21일은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의 항거에 계엄군이 퇴각했던 역사적인 날이다.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상징성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이날을 '시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는 더 많은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주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23일 토요일에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1966년 첫 제정 이후 정확히 60년의 한 주기를 짝 채우고 맞이하는 첫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아울러 오

는 7월1일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다짐을 담아 '더 큰 광주'를 주제로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선보인다.

주요 행사로는 기념식을 비롯해 정재평가바람회, 빛들이·빛나영 1주년 하우스, 세계인의 날 및 문화다양성의 날 기념행사, 시민 안전체험 한마당 등이 풍성하게 펼쳐진다.

이날 오전 11시 시청 1층 시민홀 본무대에서 열리는 기념식은 빅보스 마칭밴드의 식전 행진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이어 시민대상 시상식, 제16회 광주비엔날레 1호 입장권 구매 이벤트, 통합의 새 시대를 여는 기념 영상, 시민 참여 플래시몹 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플래시몹 공연에는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목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서구시민합창단이 참여해 광주·전남 시도민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광주와 전남이

마침내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남을 선포할 예정이다.

올해 '광주시민대상'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성숙하고 평화로운 시국대회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낸 '140만 광주광역시민 전체'에게 사상 처음으로 헌정돼 온 시민이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감동을 연출한다.

'광주시민대상 특별상'은 5·18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공의 변론에 헌신한 김정호 변호사에게 수여, 경의를 표할 예정이다. 수상자들의 상패는 명예를 기리기 위해 시청 내 홍보 공간에 공식 헌액된다.

광주비엔날레 1호 티켓 전달식에서는 노벨상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세계적 과학자 김유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최초 구매자로 참여해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이 융합하는 광주의 미래지향적 상징성을 더한다.

/이기영 기자

### 현대자동차·기아 '2026 발명의 날' 행사 개최

현대자동차·기아가 최근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소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우수 기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임직원들의 창의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사내 특허 경연대회, '2026 발명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발명의 날 행사는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의 우수 신기술 발명 출원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연구개발 지식 재산권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행사는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식재산처의 2026년 기조에 발맞춰 글로벌 R&D 부문을 더하는 등 시상 부문을 확대하고, 현장 소통 프로그램을 강화해 발명 문화 확산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작년 사내에서 출원된 발명 특허와 프로젝트 3,074건을 엄격히 평가해 ▲양산적용 특허 부문 58건 ▲우수 특허 부문 9건 ▲우수

i-LAB(Innovation/Invention/Idea Laboratory, 사내 특허 인큐베이팅 활동) 부문 2건을 선정했다. 현대차·기아 제품에 적용돼 상품성, 성능 등 차량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발명자를 포상하는 양산적용 특허 부문에서는 58건의 수상작 중 ▲무취 미생물을 포함하는 냄새 방지용 조성물(이태희 책임연구원) ▲차량용 배터리 냉각 시스템(김재연 연구위원) 개발자들이 대표로 시상대에 올랐다.

현대차·기아는 특허성(권리범위/회피곤란성), 기술 개발 선행도,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해외연구소 1건을 우수 특허로 시상했다.

최우수상에는 ▲DCAS(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 규제 항목을 고려한 차로 변경 전략(강동훈 책임연구원) ▲연료전지 차량 열화 성능 회복 운전 방법(신승호 책임연구원)이 수상의 영광

을 안았다. 올해 신설된 '해외 연구소 부문'에서는 미국기술연구소(HATCI)의 ▲원거리 트레일러 감지 및 경로 계획 시스템(예를 도안 슈머, Erol Dagan Sumer 팀장)이 수상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올해 개최될 현대자동차그룹의 연구개발 지식 공유 행사, 'HMG 테크 씨앗'에 우수 수상자들의 발표를 연계하는 등 발명 문화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기영 기자

새 열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 광주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보장기간** 2026.1.20. ~ 2027.1.19.(1년)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별도 가입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가입

보험료 부담 없이, 타 보험  
가입여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보장대상**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군 복무 청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현역병  
(단,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지급방식**

1. 상해발생
2. 보험사청구
3. 보상여부 검토
4. 보험금 결정 및 지급

**상담 및 청구**

상담(메리츠화재해상보험)  
☎ 전화번호 070-4693-1655, 070-8892-3786  
☎ 서류접수(FAX) 070-4758-8556

문의 :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과 062)613-2723

광주광역시 GWANGJU CITY